

2013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

1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3. 1. 21(월) 16:00~18:30
- 장 소 : 호암교수회관 파인룸
- 참 석 : 위원 9명 전원 참석
 - 외부전문가 및 동문 : 김재식(위원장), 조춘(부위원장), 김경률 위원
 - 학교대표 :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
 - 학생대표 : 연창기, 전경호, 김가람 위원

2. 회의 안건

-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3. 회의 내용

- 안건 설명
 - 전차회의록 설명(예산과장)
- 회의 내용
 - 등심위 위원 9명 전원 참석함에 따라 회의 개최
 - 주요 토의 내용
 - 〈학생측 주요 문제 제기 내용〉
 - 2012년도 법인회계 지출현황 분석결과 약 10억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 됨
 - 기성회비가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이라는 판례가 있는 만큼 등록금심의에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함
 -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II형을 못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책
 - 발전기금의 공시자료를 보면 발전기금 재원 약600~700억원이 법인회계로 전입되어야 함
 - 2012년도 등심위에서 학부등록금은 5%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는 조건이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음
 - 〈학교측 주요 답변 내용〉
 - 법인회계 이월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고, 집행 잔액은 다음해 세입·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. 정부회계도 3%~4%수준의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음

-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등심위에서의 논의는 적절치 않음
-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II 형과 법인회계 상관관계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학교 재정운용에 유리함
-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집행할 예정
- 독립재단인 발전기금 예산 대부분이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학교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음(예산관계 자료를 현장에서 회람)
- 일부 외부위원은 등록금 동결도 필요함을 의견 개진
- 학생 측 위원들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차별적인 등록금 책정은 반대함을 주장
- 학생측에서 오늘 제출된 자료와 논의한 사항을 재검토하고 학생측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차기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마무리할 것을 제안

4. 심의 결과

- 전차회의록은 수정 없이 받아들임
- 이월금 근거자료, ‘국가장학금 유형 II’ 와 관련된 재정지원 현황자료, 발전기금 관련 자료 등 제공에 협조하기로 함
- 학생측 제안에 따라 3차 회의 개최에 전원 동의하고, 차기 회의에서 등록금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함
- 차기회의 결정 : 2013. 1. 23.(수) 17:00